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성명	이 예 환
----	-------------	----	-------

제 목	평범한 주부,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펼치다!		
-----	-------------------------	--	--

저는 월급쟁이 배우자를 둔 평범한 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따로 크게 모으고 있는 돈이 없어도 매해 쌓여져 가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면
노후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바라기 주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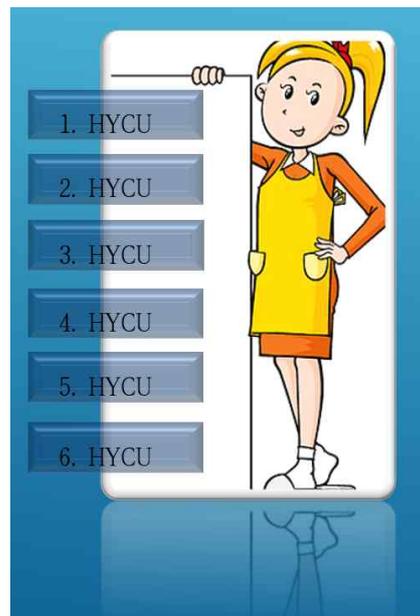
1. 또 다른 인생의 시작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던 2015년 8월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실직!!!
정직원으로 20년 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 사건은
뱃속의 돌짜를 계류 유산하고,
친정에서 산후 조리하고 돌아온 저에게는 심장이 멎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어요.
심신이 약해져 있던 저는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온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었죠.
순간 스치는 첫 번째 생각은
당시 4세였던 딸 아이 ‘불쌍해서 어떡하지?’
‘하고 싶다하는 거 못 해주면 어떡하지?’
‘어제까지 쓴 카드 값 어떡하지?’ 등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현실이 저희 가족에게 빨리 찾아온 것에 대한 원망도 많았어요.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때 생각했던 것이
‘공부하자!’였어요.

육아를 하고 있는 저는 아동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학하여,
논문도 쓰고,
대학원도 가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검색 후 편입학한 곳이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2. Why HYCU 인가?

한양사이버대학교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한양대 캠퍼스 안에 사이버 학습관이 위치하고 있고
둘째, 다양한 커리큘럼의 오프라인 강의들과
셋째, 심리상담센터가 있어서 1년 동안 인턴수련을 받을 수 있고
넷째,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섯째, 다양한 학사 일정과 엠티, 축제 등
각종행사가 학생회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 2의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었어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는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고,
수시로 강의를 들으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 후 어떤 분들이 상담 공부를 하시나
궁금한 마음에 각종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교수님들의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두 번째 스무 살이란 표현답게
다시 대학생이 되어 즐기게 된 학교생활은
저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3. 불행의 끝에서 희망을

당시 4세였던 딸아이를 데리고
오프라인 특강참석 및 각종 학교행사에 참석하고 상담 공부를 하면서
실직 후 제일 마음 아파했을
남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노력 할 수 있었어요.



육아를 하면서

아이의 언행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니들이 학기마다 저의 등록금을 내줘야 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기대치에 미쳐야 한다는 생각은
당시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저에게
너무나 힘든 부담감을 안겨주었죠.

20살 이후 공부는 안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던 저에게
새 삶을 열어준 것은 '남편의 실직'이었어요.
망막암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한 상담공부였지만,
지금은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 감사한 대학생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와 시험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어요.
'잘하고 있는 건가?'
'상담공부는 끝이 없다하는데'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더욱 끈을 놓지 않기 위해
학생회 임원활동도 재밌게 했었고,
특히 14학번 4학년 대표를 맡았을 때는
한 학년의 대표로서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14학번 대표를 맡게 되면서 교수님들과 학우님들을 모시고
일생 처음으로 인솔자로서 경험한 졸업여행은
여행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제가 한층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공부를 하게끔 이끌어주시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
교수님들의 사랑의 울타리는 지치고 힘들어
픽 쓰러지는 저를 오통이처럼 만들어주셨어요.
특히 '논문을 쓰라'고 말씀해주시는 저희 과 교수님들.
너무 감사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힘들 거 같아서
졸업시험으로 선택할까 갈림길에 설 때마다
논문발표, 논문콘서트에 관련된 학과 게시판 내용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아동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공부였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릴 적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면서,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동기 아이들을 접해보고 싶어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계형 돌봄 강사로 근무도 했습니다.
당시 보육에 관련된 자격증이 한 개도 없던 저로서는 큰 도전이었고,
상담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를 수 없었던 경험이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의사표현을 하는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생활습관이 나오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한 논문주제는
“이중메시지가 유아의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이중메시지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서
논문 서론잡고 쓰기에 힘든 점도 많았지만,
지도교수님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양육자와 유아 32쌍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논문은 제 인생의 목표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고, 꼭 해내고 싶었어요.
밤잠 뒤척일 때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 번 다짐 했었고,
꼭 이루고 싶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베갯잇은 저의 눈물로 축축이 젖어있었어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 감사했고,
특히 끝까지 지도에 애써주신 지도교수님의 사랑은 잊지 못합니다.

한참 실험연구를 진행하느라 바빴던 작년 4월.
또 한 번의 남편의 실직.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위기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한참 논문진행에 바쁠 때 일이 생겨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신경을 한 곳으로 쏠아 부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상담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으면
마음 다스리기가 어려웠을 거 같아요.

그래서 더 해내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고, 해야 돼서 더욱 노력했습니다.



4. 기회의 연속

이렇게 완성된 논문은 2018. 6월 무사히 발표도 끝낼 수 있었고,
운 좋게 지도교수님과 함께 2018년 9월 29일 논문콘서트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논문콘서트와 달리 실험연구 진행에 맞는 색다른 논문콘서트.

콘서트 단어처럼 재미있게 하자라고 제안해주신

지도교수님의 말씀에 따라

저만의 논문콘서트를 준비하고

마친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논문발표를 끝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던

저의 계획은 남편의 두 번째 실직으로 인해 바뀌었지만,

상담심리학과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받기로 결심했었죠!!!

심리상담 센터에서 인턴상담사로 1년 동안 수련 받는 과정은

제가 공부의 끈을 잡고 있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나를 돌아볼 기회가 되면서,
남을 헤아려주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수련 과정은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한 것에 감사하고,
심리상담 센터가 저희 학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인턴상담사로서 생활을 하던 중
저에게 또 한 번의 목표를 향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양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18. 10월. “부모교육 교류분석지도자 과정” 강의를 개설된 것입니다.
강의 제목이 저의 목표와 일치되는 거 같아서 더욱 관심이 생겼었어요.
교수님의 조교를 맡게 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평생교육원으로 가는 발걸음은
저의 목표에 다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수료를 거쳐
현재는 마지막 단계인 지도자 과정에 수료 중입니다.
부모교육 교류분석 지도자 과정의 자격증도 발급되는 9개월 과정이
벌써 다음 달에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을 수 있게 짜여진
평생교육원 부모교육 교류분석 지도자과정은
단순히 코칭 부모교육만 생각했던 저에게 상대방을 헤아려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연하는 부분에서 약간 긴장감도 있지만,
목표로 향해 가는 하나의 관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머와 재치 있는 부모교육 강사가 된 모습을 상상하며,
현재는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5. HYCU에서 꿈을 잡다.

저는 평범한 주부이자, 40대 중년이 된지 2년차인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릴 적 가정형편으로 언니들의 도움을 받으며

대학 공부를 해야만 했던 시절을 보냈고,

수능이 끝나면 공부 안 하기로 결심했던 저였습니다.

평범한 남자를 만나 평범하게 살던 중

경제적 위기를 두 번 만난 중년의 아줌마이기도 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만나

저의 인생 목표를 새롭게 세울 수 있었고,

마음도 점점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상담심리학과

교수님들의 울타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노력합니다.



사람에게 7가지 색깔이 있다면
저는 필요한 사람에게 저의 색깔을 나눠주고 싶어요.
다 나눠주고 저의 색깔이 없어서 투명해 진다해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게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들의 아이가, 친구가, 이웃이, 동료가
본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찾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잘할 수 있게
부모를 교육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편의 실직으로 시작된 늦깎이 두 번째 대학생활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하고 싶고 이루고 싶습니다.
과거에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저를
이렇게 성장 하게끔 이끌어 준 한양사이버대학교를 만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